

라티노 이웃들과 더불어 사는 5계명

- 최남용

여러분들은 알고 계셨나요?

첫째, 미국 내 중남미 이민이 자의 보다는 타의에 의해 시작된 독특한 이민의 역사를 가졌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물론 20세기 후반 많은 중남미 이민자들이 미국으로 이주해 거주하게 된 것은 사실이지만, 미국 중서부에 살던 스페인계, 그리고 멕시코인들은 미국이 건국되기 전 이미 북미대륙에 정착해 살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텍사스와 서부지역으로 자국 영토를 확장하려던 미국정부가 1848년 전쟁을 선포하고 승리한 멕시코 전쟁 (Mexican American War)의 결과로 본인들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미국의 시민권이 되기를 강요(?)받은 사람들입니다. 물론 현재 미국 본토 삼분지 일에 해당하는 광활한 영토의 (텍사스부터 콜로라도, 캘리포니아에 이르는 지역) 획득과 함께였지요. 현재 미국내 멕시코계 미국인들의 숫자는 3천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미국 본토에 살고 있는 4백 60만명의 푸에르토리코인들 역시 19세기 말 미국정부가 스페인에 일방적으로 선포했던 스페인과의 전쟁 (Spanish American War, 1898)에서 승리하게 됨에 따라 역사의 부산물로 미국 시민권자가 된 사람들입니다.

둘째, 미국 내 스페인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5천 5백 3십만 명의 인구를 (2014년 현재) 하나의 독립된 국가로 분류했을 때, 세계 스페인어권 국가들 중 멕시코 다음으로 2번째 인구가 많은 국가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참고로 스페인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국가들 중 제일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는 나라는 멕시코로 2014년 현재 1억 2천만 명이며, 세번째는 콜롬비아로 4천 8백 5십만 명이고, 네번째는 스페인으로 4천 7백 7십만 명이고, 다섯번째로는 아르헨티나로 4천 3백만 명에 육박합니다. 그리고 스페인어를 공식언어로 사용하는 모든 나라의 인구는 4억 4천만 명에 이릅니다. 2014년 현재 5천 5백 3십만이나 되는 Hispanic/ Latino American들은 미국 내 두 번째로 빨리 성장하는 ethnic group 이며, 로스앤젤레스 시에서는 거의 48 %의 가정에서 스페인어를 모국어로 사용하고 있으며, 미국 전체 인구의 17.37 %에 달해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결정적인 casting vote를 행사하게 될 파워블록 (powerblock)로 간주합니다.

세번째, 우리가 흔히 통틀어 모두 중남미인들 이라고 일컫는 Hispanic/ Latino American들이 실지로는 독특한 역사적 동기와 상황들로 이민을 오게 된 다양한 ethnic group들이며 또한 각기 다른 정치적 성향과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집단임을 알고 계

셨나요? 예컨대, 1960년 대 거의 1백만 명 가까이 남부 플로리다로 이주한 쿠바계 미국인들은 피델 카스트로의 사회주의 혁명 이후 공산화 되가는 쿠바사회에서 더 거주할 수 없어 고향을 떠나게 된, 지도층 백인 이민자들 이였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전통적으로 민주당을 지지하는 대부분의 Hispanic/ Latino 미국인들과는 달리 반 카스트로, 보수 반공주의 노선을 지향하는 공화당을 지지하는 그룹입니다, 또한 80년대 초 레이건 정부가 니카라과 산디니스타 사회정부를 무너뜨리려는 목적으로 만든 친미 반군 Contra의 게릴라 활동으로 중미 여러 나라로 확산된 사회적 혼란, 즉 Central America의 내전으로 거의 800만 명의 피난민들이 발생하고 그 중 350만에 달하는 과테말라인, 엘살바도르인, 혼두라스인들이 미국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인종적으로도 Hispanic/ Latino 이민자들은 다양합니다. 아르헨티나나 우르과이 또는 쿠바 상류층에서 이주한 백인들로 부터, 멕시코와 엘살바도르 니카라과에서 이주한 메스티조, 과테말라와 볼리비아 산간 지방, 그리고 멕시코 남부 치아파스 지방에서 이주한 Amerindian(인디언)들, 그리고 마리엘리또 (Marielito)라 불리는 80년대 대거 이주한 쿠바 하류출신 난민들을 포함, 도미니카 공화국, 그리고 카리브 해안 지역에서 이주한 흑인 또는 물라토 (mulatto) 인종까지, 우리가 중남미인들이라 불리는 사람들은 다양한 인종들이며 또 다양한 삶의 스토리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네번째, 이제 미국의 기독교, 특히 로마 천주교와 오순절 교회들의 역사와 현황, 그리고 앞으로의 방향을 이야기 할 때 Hispanic/ Latino American들을 언급하지 않고는 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미국 내 Hispanic and Latino American들은 오랜 세월 가운데 WASP (White Anglo Saxon Protestant)가 지배해 왔던 미국 주류사회에서 많은 사회적 편견과 장애를 넘어 괄목할 수적 성장과 심도 깊은 융합(integration)을 이루어 현재 미국 내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면에서만 아니라 특별히 종교적인 면에서 큰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이들은 미국 카톨릭 교회 신도 수의 50%에 달하고 있으며 특히 아르헨티나 출신 교황 프란치스코 1세의 영향력있는 활동으로 카톨릭 내 Hispanic/ Latino American들의 더 많은 역할을 기대케 하는 추세입니다. 또한 오순절 교단들 내 성장을 견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교단 내에서 "The Silent Pentecostals"로 알려졌던 Hispanic/ Latino 오순절 교인들은 이제 더 이상 ""조용한" 오순절 교인이 되기를 거부합니다. 최근 **Latino Pentecostals in America**를 저술한 Clearmont McKenna College의 Gaston Espinosa 교수에 의하면 현재 미국 내 60만 명의 Latino 들이 매년 캐톨릭에서 개신교로 개종하고 있으며, 천 이백 오십만 명 (12,500,000명)의 Hispanic/ Latino들이 자신을 개인교인이라 밝히고 있으며, 또한 미국 Assembly of God 교단의 가장 큰 교회가 시카고에 위치한 Latino 교회 New Life Covenant Church (성도수 1만 7천

명) 라고 합니다. 또한 이제는 뉴욕시의 종교생활을 이야기할 때 푸에르토리코인들의 종교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고, 남가주의 종교생활을 이야기 할 때 멕시코와 센트럴 아메리카 이민자들의 종교생활을 소개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 Hispanic/ Latino 개신교인들은 아직도 racial equality, women in the ministry, social and political activism, and immigration reform, 및 indigenous leadership 등의 이슈들로 struggle 하고 있지만, 미국 주류교단들 내에서 점점 더 능동적으로 (actively) 자신들의 Voice를 높이며 정체성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이 Hispanic/ Latino American들이 바로 우리의 이웃들입니다.

이 Hispanic/ Latino 이웃들과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 저는 다음과 같은 5계명을 제안하며 함께 고민하기를 원합니다.

1. 먼저 저는 우리 안에 혹 있을지 모르는 라티노 이웃들을 향한 우리들의 편견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많은 한인들 가운데 만연한 편견들, 즉 라티노들은 우리보다 물론 인구는 많고 따라서 구매력의 가능성은 무궁무진하지만 우리 한인들보다 교육열이나 경제적인 면에서 열등하며, 따라서 우리가 그들에게 가르치면 가르쳤지, 그들에게서 배울 점은 별로 없는 민족들이라는 편견을 버려야 합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 많은 한인들이 편견을 가지고 대하는 이 Hispanic/ Latino American들이, 실상 우리들의 자라온 배경, 언어, 문화란 껍질 한 두 개만 벗기고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면 우리와 다를 바가 전혀 없는, 동일한 아픔, 기쁨, 두려움, 소망을 소유한,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일하게 창조하신 "*Imago dei*"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우리들의 고정관념들을 내려놓는 것이 출발점이라 믿습니다.

2. Hispanic/ Latino American들은 하나님께서 미국이란 다민족 이민 사회에서 우리로 하여금 더불어 삶을 나누며 살게 하신 "우리의 이웃"이라는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매일 한인업소에서 일하는 직원으로, 또는 관공서의 청소부로, 정원사로, 또는 무거운 짐을 나르는 이사센터 직원으로 만나게 되는 이 Hispanic/ Latino American들은, 우리가 우리 이익을 위해 이용할 대상(object)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로 그들과 더불어 삶을 살게 하신 소중한 "우리의 이웃"이라는 분명한 자각이 있어야 하며, 그리고 이러한 자각은 우리의 이웃된 이들을 진정으로 존중하는 것으로 귀결 되어야 합니다.

3. 히스패닉 이웃들을 존중한다는 것은 무엇보다 먼저 그들의 다양성을 이해하려는 자세, 또한 그들의 독특하고 다양한 삶의 스토리들, 이민의 역사를 배우고자 하는 열린 자세,

세에서 시작됩니다.

장구한 이민의 역사 속에서 주류 백인 사회 (WASP)로 부터 사회적, 인종적 편견과 장애 속에서 오늘에 이른 Hispanic/ Latino 이웃들에게 우리는 분명히 배울 점들이 있습니다. 저들이 이곳까지 다다른 그들의 이민의 역사와 스토리들은 (Their stories of how they arrived to where they are now)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으며 우리 한인공동체가 나아가 할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많은 한인교회들의 히스페닉 사역과 선교를 볼 때,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성육신적 접근과 섬김, 전도가 아닌, 일방통행적이고 단편적인, 그리고 우월감이 묻어나는 무례한 선교이며, 섬김일 때가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말하기보다 듣는 것, 주기보다 받는 것, 그리고 가르치려 하기 보다 우리의 이웃들에게서 배우고 경청하려는 자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들의 다양한 삶의 스토리, 애환을 듣고자 하는 우리들의 겸허한 자세를 볼 때, 그들 역시 마음의 빗장을 활짝 열게 되리라 믿습니다.

4. 그들을 우리 있는 곳에 초청하기 보다 우리가 그들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고 방문합시다.

많은 한인교회들이 주기적으로 건축바자회 또는 선교 바자회를 하며, 또는 특별 초청 집회를 열어 주위의 Hispanic/ Latino 이웃들을 초청해 한국 문화, 음식을 소개하고 한인업소에서 기증받은 의료품들이나 전자제품들을 전달할 때가 많습시다만, 이제는 우리가 그들을 우리들의 집회에 초청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들의 집회, 모임에 찾아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들의 하는 문화행사에 관심을 갖고, 찾아가 함께 즐기고, 배우고, 그들의 특별집회에 찾아가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고민하며, 깊은 신뢰와 관계의 bridge를 만들어 갈때 진정한 이웃이 되지 않겠나 싶고, 진정한 동역이 시작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5.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한인교회들의 Hispanic/ Latinos 사역가운데 좀 더 포괄적이고 전인격적인 접근 (holistic approach)과 정중한 자세가 (respectful attitude)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최근에 이민온 Hispanic/ Latino 이웃들은, 특별히 Central America에서 내전을 피해 이주한 이웃들은 내전으로 인해 극한 상황가운데 가족들과 생이별한 트라우마가 있었던 사람들이며 불법체류 신분으로 인한 애매모호한 정체성, 고립감, 추방에 관한 공포와 두려움이 있으며, 매일매일 언어와 문화의 장벽, 그리고 인종적 편견과 싸우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온전한 복음이 영적인 자유함만이 아닌, 전인적인 자유함도 주신다는 것을 그들이 볼 수 있도록 우리 한인교회가 그리

스도의 손과 발이 되어 다가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단지 일회성 여름성경학교나 급식배급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사역들의 필요성은 계속 있습니다) 또한 우리 한인들이 생각하는 그들의 필요(needs)들이 아니라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felt needs들을 그들의 커뮤니티 리더들과 또 그들을 섬기는 사역자들과 기도와 대화 가운데 찾아 동역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들 커뮤니티와 연계해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영어 교실이나 이민법률 및 의료상담과 ministry, 또는 음악교실이나 가정사역등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방적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 사역의 태동 시점 부터 진행되고 마무리 질 때까지 신뢰가 형성된 히스페닉 교회들과 동역 할 때 진정으로 히스페닉 교회들과 커뮤니티를 empower 할 수 있으며, 진정한 의미에서 더불어 가는 이웃이 되리라 믿습니다.